

# '어벤져스4' 흥행 '아바타' 제쳤다...역대 외화 1위

관객 1339만명 넘어서  
40대가 N차 관람 가장 높아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이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웠다. '어벤져스4'는 개봉 26일째인 19일 오전 11시 45분 누적 관객 1339만1032명을 동원해 '아바타'의 기록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 4')이 '아바타' (2009)를 제치고 10년 만에 역대 외화 흥행 1위 자리에 올랐다.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어벤져스 4'가 개봉 26일째인 19일 오전 11시 45분 누적 관객 1339만103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바타'의 누적 관객 수 1333만 8863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을 뛰어넘은 기록이다.

2009년 12월 개봉한 '아바타'의 흥행 성적은 통합전산망 기준과 배급사 집계(1362만명)와 다소 차이가 있다. 영진위는 2011년부터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를 매긴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어벤져스4'는 역대 최고 사전 예매량(230만장), 역대 최대 오프닝(134만명), 역대 일일 최다 관객 수(166만명), 역대 최단 1000만명 돌파(개봉 11일째) 등 각종 신기록을 양산했다.

특히 봄철 비수기 개봉과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흥행 열풍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명량' (2014년·1761만명)을 비롯해 '극한직업' (2019년·1626만명), '신과함께-죄와 벌' (2017년·1441만명), '국제시장' (2014년·1425만명), '베터' (2015년·1341만명) 등 현재까지 '어벤져스4'보다 높은 흥행 성적을 낸 작품들은 모두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개봉했다.

'어벤져스4'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1년간 이어온 '어벤져스'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일

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막상 무명을 열어 보니 재미와 메시지, 화려한 비주얼 등을 갖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줘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특히 히어로의 퇴장을 아쉬워하는 관객들이 두 번 이상 극장을 찾으면서 흥행은 더욱 탄력이 붙었다.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어벤져스4'를 'N차 관람' (다 회차 관람)한 관객 비중은 6.6%로 집계됐다. 관람 횟수별로 보면 2회 관람한 관객이 89.1%로 가장 높았고 3회 관람이 7.7%, 4회 관람은 1.3%였다. 5회 이상 본 관객 비율도 1.9%였다.

재관람 관객을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3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8.5%, 30대가 26.1%였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영화 자체가 높은 완성도를 지닌 데다, 이 작품을 끝으로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관객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 N차 관람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아이맥스, 2D, 3D, 4DX 등 다양한 상영 포맷도 재관람을 이끈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BTS 제이홉 장학금' 첫 수혜자 나왔다 광주 국제고 15명·전남여상 10명

50만원~100만원 씩 지급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모교에 기탁한 장학금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춘태학원 산하 국제고와 전남여상은 지난 15일 각각 15명, 10명에게 '제이홉 장학금'을 줬다.

제이홉은 지난 2월 18일 생일을 맞아 모교인 국제고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1억원을 기탁했다.

국제고와 전남여상은 올해를 포함해 5년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고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모두 15명, 전남여상에서는 50만원씩 모두 1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을 받게 된 김모 양은 "목표로 한 공공기관에 꼭 취업해 (나도)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창재 국제고 교장은 "제이홉은 힘든 연습 생활 중에도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세계적 스타가 되고서도 모교와 후배들을 잊지 않으니 고맙고도 대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이홉

## 김아중, JTBC 예능 '비밀 기획단' 메인 MC 발탁



배우 김아중(37·사진)이 JTBC 신규 예능 '지상 최대 고백쇼, 비밀 기획단'의 메인 MC를 맡는다고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2005년 KBS 2TV '해피투게더-프렌즈'로 첫 예능 MC를 맡았던 김아중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MC로 출연하는 건 약 14년 만이다.

'비밀 기획단'의 구체적인 포맷과 방송 일자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치다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이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메카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50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스페셜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스포츠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에스토니아에 반할지도 1부> 07:00 레이디버그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뽀로로 뽀로로 09:30 원더볼츠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순욱의 독배기불고기과 매콤 독백>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윤숙자의 평양냉면> 13:40 다큐 시선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탐원 구조대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짝과 팡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 (음 4월 16일 丁巳)
<p><b>子</b> 36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48년생 현대에 휘말려든다면 그 즉시 후회만 한다. 60년생 생 가려, 광복상대할 만하다. 72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 들겠다. 84년생 혼신의 힘으로 매진해야 겨우 쟁취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2, 78</p> <p><b>丑</b> 37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49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61년생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3년생 변경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의혹을 살 수 있다. 85년생 처한 입장에 따른 차이가 심하다. 행운의 숫자 : 06, 65</p> <p><b>寅</b> 38년생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빛나리라. 50년생 일방적이거나 무리가 따를 것이다. 62년생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74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6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07, 36</p> <p><b>卯</b> 39년생 현재 상태대로 증행하라. 51년생 똑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63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75년생 기쁜 충실했을 때 처리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87년생 오매를 향으로 학습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8, 81</p> <p><b>辰</b> 40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함이 무방하다. 52년생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미루지 마라. 64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76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88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60, 40</p> <p><b>巳</b> 41년생 공을 들여라. 53년생 조언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65년생 양호한 기분이 완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77년생 힘들면 쉬었다 차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89년생 모든 것을 차지고 속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30, 03</p>	<p><b>午</b> 42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효용적이다. 54년생 승환과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66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 78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90년생 굳이 지엽적인 부분까지 지대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45, 80</p> <p><b>未</b> 43년생 포기할 줄도 알라. 55년생 평상시에 바라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었다. 67년생 본격적인 판세라 할 만하니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가편해야 한다. 79년생 더 나은 조건이다. 91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62, 94</p> <p><b>申</b> 44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56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68년생 발전을 위한 아픔은 감내 해야만 하느니라. 80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92년생 예상치 못 했던 충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삼가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38, 87</p> <p><b>酉</b> 45년생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7년생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69년생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 70년생 양호한 시기가 조성되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93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44, 34</p> <p><b>戌</b> 34년생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46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58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70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2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과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 70</p> <p><b>亥</b> 35년생 세분화 할수록 이롭다. 47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59년생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71년생 한 동안 잠잠했던 현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괴로움을 준다. 83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9, 5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